



N개의 방과후 프로젝트



지금 이 모든
순간을 즐기고

친구들과 배움의
기쁨을 맛보며

좋은 세상을 위해
쓸모있는 일을 만드는

광주광역시청소년삶디자인센터와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이 함께하는

삶디는
별칭과 호칭 문화를 통해서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 맺기를
시작합니다.

- ▽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에 청소년을 '노리'
- ▽ '노리'를 다양한 세상과 이어주는 제 3의 어른들을 '고리'
- ▽ 삶디의 뼈대를 세우고 십대들과 함께 살을 붙여가는 삶디 스태프를 '벼리'

N개의 방과후 프로젝트

N개의 방과후 프로젝트란?

방과 후에 학교 밖에서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경험하고 자신의 삶에 필요한 배움을 익힘으로써 생기 있는 일상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방과후 진로활동 프로젝트'입니다.



지역 고등학생이 한 학기동안 평소 관심 있던 분야에 대한 감각을 깨우고, 지식과 사고를 확장하며,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다음 목표(진로)를 설정하여 필요한 요소들을 스스로 인지하고 기획할 수 있도록 배움을 이끕니다.



모집대상	광주광역시에 있는 고등학교 재학생 누구나
활동내용	목공, 디자인 등 5~6개 과정 / 과정당 10명
모집기간	(상반기) 2월 하순 ~ 3월 초순 / (하반기) 7월 하순 ~ 8월 초순
활동기간	(상반기) 3월 하순 ~ 6월 하순 / (하반기) 8월 하순 ~ 11월 하순 매주 목요일 18:30~21:30 / 총 15회차
활동장소	광주광역시청소년삼다디자인센터(동구 황금동)

- 본 프로젝트 활동은 프로그램 80% 이상 출석자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창의적체험활동)에 기재됩니다.
- 본 프로젝트 활동 일정은 추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즐기면서 배우고 세상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

즐기다

함께 모여 좋아하는 일을 하면
즐겁게 시간이 지나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배우다

즐겁게 배우는 습관이 자연스레 몸에 배면,
점점 더 '배움에 대한 의욕' 이 늘어나겠지요.

의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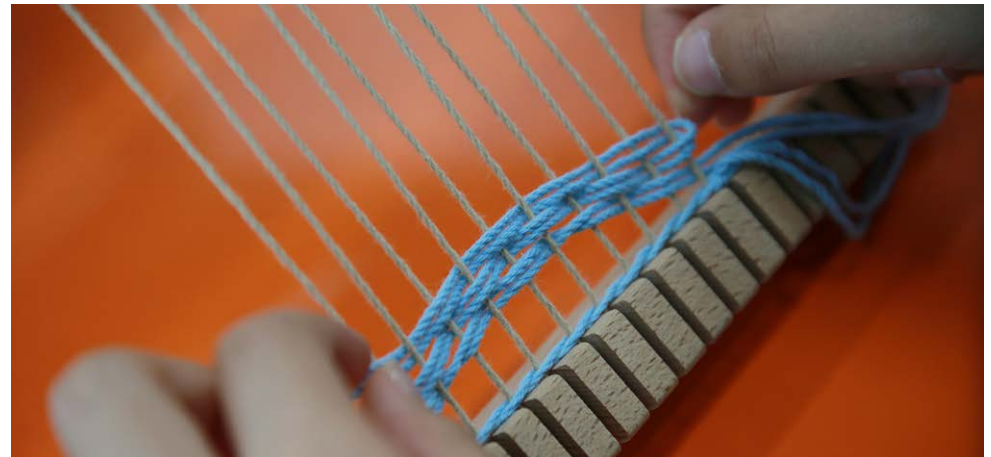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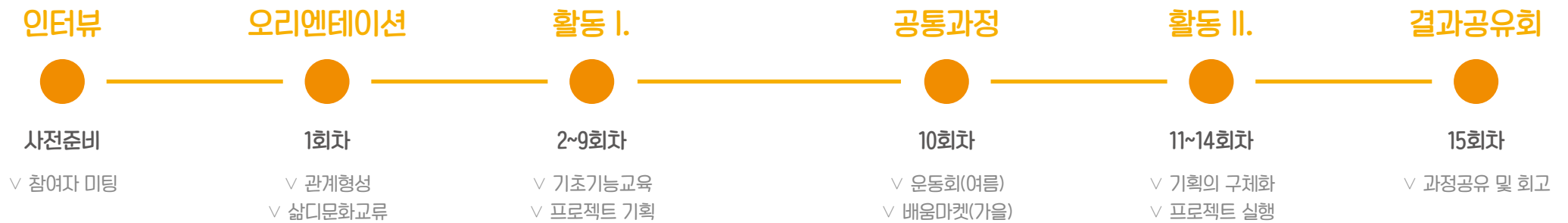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사회적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깨닫는 계기가 됩니다.

"이런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 지극히 따분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일상을 즐기고픈 친구
- 세상만사에 관심이 있고, 내 삶을 직접 선택해 변화를 만들고 싶은 친구
-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실행해보고 싶은 친구
- 이것저것 만들기를 좋아해서 손재주를 길러보고 싶은 친구
- 좋아하는 음악으로 감성충만한 분위기를 연출해보고 싶은 친구
- 시각적인 표현에 관심 있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보고 싶은 친구



N개의 활동과정



N개의 발자취

N개의 방과후 프로젝트 운영현황

구분		운영 프로젝트		참여 청소년			
		개수	횟수	지원	확정	수료	수료율
2017	1학기	2개	40회	19명	18명	15명	83.3%
	2학기	4개	84회	92명	56명	47명	83.9%
2018	1학기	5개	62회	77명	50명	47명	94.0%
	2학기	6개	86회	129명	63명	56명	88.9%
2019	1학기	5개	75회	72명	45명	41명	91.1%
	2학기	5개	75회	73명	50명	44명	88%

2017년

- 400리 식당
- 쓸모를 만드는 나무
- 우물밖디자인
- 굿프레임

2018년

- 세상에서가장느린식당
- 쓸모를 만드는 나무
- 우물밖디자인
- 굿프레임
- 내맘대로뮤지컬공작소

2019년

- 쓸모를 만드는 나무 #나무와금속 #생활목공 #제품디자인
- 우물밖 디자인 #시각디자인 #일러스트레이터 #포스터디자인
- 굿 프레임 #영상콘텐츠 #뮤직비디오 #광고제작
- 평화로운 바느질 #전통바느질 #바느질수다 #배넛저고리
- 소심한 음악수다방 #가사쓰기 #곡쓰기 #음악수다

즐기며
배우고
나의 쓸모를
찾는

N개의
방과후
프로젝트





생활목공 익히기

- ▽ 기초 목공구 이해
- ▽ 나무 파레트 가공

관찰과 구상

- ▽ 일상 속 패턴 관찰
- ▽ 작품 디자인 설계
- ▽ 스케치 작업

작품제작

- ▽ 패턴 가공
- ▽ 작품 구체화
- ▽ 색채 작업 및 마감

쓸모를 만드는 나무

일상에서 관찰한 다양한 모양과 패턴을 응용해
생활 제품을 만드는 목공 디자인 프로젝트





우물 밖 디자인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면서
 디자인 감각과 창의적인 표현력을 키우는 시각디자인 프로젝트



일러스트 기초 교육



- ▽ 기본툴(Tool) 이해
- ▽ 디자인 저작권 교육

아이디어 구상



- ▽ 일상 소재찾기
- ▽ 아이디어 스케치

디자인 작업



- ▽ 일러스트레이터 활용
- ▽ 피드백





제작준비

- ▽ 장비사용법 이해
- ▽ 레퍼런스영상 분석

기획과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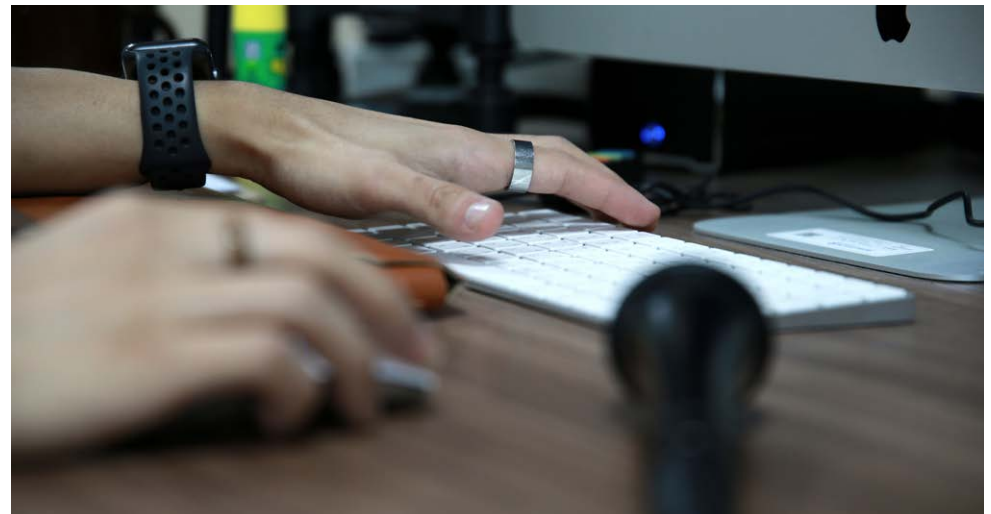
- ▽ 장르 설정
- ▽ 영상콘티 기획
- ▽ 캐스팅 및 촬영

편집

- ▽ 컷 분석
- ▽ 자막 및 컬러그레이딩

굿 프레임

기획, 촬영, 편집 등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기본 기술과 과정을 익혀 팀별 작품을 만드는 프로젝트.





한복의 이해



- ▽ 한복 리디자인 스케치
- ▽ 기초 바느질 이해

원단과 디자인



- ▽ 치수 및 옷본 제작
- ▽ 원단 제작

한복 제작



- ▽ 안감과 겹감 바느질
- ▽ 깃 재단 바느질
- ▽ 프로필 촬영

평화로운 바느질

고요히 바느질하고 전통을 공부하며 옷에 이야기를 담아가는
전통의복 디자인 프로젝트





음악 분석

- ▽ 개인 취향 공유
- ▽ 음악 감상 및 분석
- ▽ 음악 재해석

작사와 작곡

- ▽ 기본 코드 이해
- ▽ 대중 음악 개사
- ▽ 일상 속 기록 공유

공연기획

- ▽ 음악 장비 이해
- ▽ 공연 연출가 만남
- ▽ 음악 공연 기획 및 실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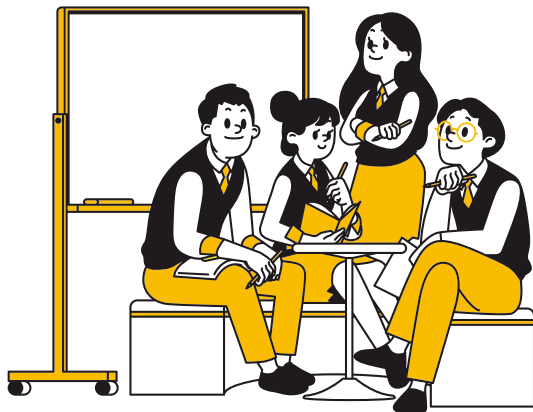
소심한 음악수다방

감성 충만한 음악을 함께 듣고 즐기며 만들어보는
음악수다 프로젝트



모두가 만나는 날

자연스럽게 삶의 문화를 알고
참여자 간 정보공유와 관계형성이
이루어지는 **교류의 장**



『밥은 먹고 땀기냐』

우리의 시작은 밥을 함께 먹는 것부터



『오리엔테이션』

첫 만남으로 각자의 별칭을 짓고, 함께할 친구들과 관계형성 하는 시간



『N개 운동회』

함께 땀 흘리며 머리보다 몸과 마음을 쓰는 문화교류활동



『N개 전시』

3개월 동안의 배움을 보여주는 전시



『배움마켓』

노리가 노리에게 자신의 경험과 재주를 가르치고 배우는 장



『통합 쇼케이스』

졸업, 석달을 보낸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풍월을 읊는 자리



나의 N개

굿프레임을 한 후 나의 가장 큰 변화는 영상에 대한 태도이다.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세밀한 작업의 연속이었다. 주변에서 영상은 너무나도 흔하기 때문에 마냥 친숙했는데, 이제는 친근한 만큼 조심스럽기도 하다. 영상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영상에 대한 무지가 부르는 친숙하고 편안한 마음이 이제는 조심스럽고 어려운 마음이 되었지만, 나는 이런 변화가 마음에 든다. 이제서야 내가 영상을 진심으로 대하게 된 것이다.

『굿프레임 - 하마』

평화로운 바느질을 참여하기 전에도 옷을 만든다는 것은 크나큰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의 참여를 통해 좀더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쉽게 도전할 수 있을만한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만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하나를 완성하고 난 뒤에 따라오는 것은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과 크나큰 보람이었기에 매우 만족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평화로운 바느질 - 호롱이』

머리로 구상하고 스케치했던 작품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생각보다 너무 어렵고 디자인도 다시 생각해 보느라 시간도 부족했지만 점점 틀이 잡혀가고 작품이 되어가는 게 눈으로 보아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구멍을 뚫은 것도 이상하게 뚫어졌지만 직접 했기에 들쭉날쭉한 구멍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상하는 것부터 만드는 것까지 직접 한 작품이라서 기억에도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쓸모를 만드는 나무 - 희아』

저희 학교에는 인문계 일반고지만 예체능을 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은데 그중에서 실용음악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손에 꼽아서 음악을 하고 싶고, 좋아하는 친구들을 더욱 만나고 싶었어요.

주변에 같이 음악 얘기를 할 친구도 없고 진로가 다르다보니 진로에 대한 고민도 친구들과 깊게 이야기를 나누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삶디에 오면서 실용음악과에 간 친구, 음악교육과에 가고 싶은 친구, 실용음악을 만들고 싶은 친구, 영화음악을 만들고 싶은 친구 등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친구들과 함께 얘기하고 곡을 만들어간다는게 너무 좋았던거 같아요. 삶디를 오면서 평소와 달라진 일주일 중 하루가 너무 기다려지고 소중한했습니다.

『소심한 음악수다방 - 해마』

마지막 쇼케이스에 보여줄 음악을 주제로 한 포스터를 만들었다.
첫 콜라주 작품을 만들던 것이 어제 같은데 이제는 일러스트를 배워서 내 취
향이 담긴 포스터를 만드니까 그동안 배웠던 것이 새록새록 생각이 난다.
접해보지 못했던 것을 많이 접해보면서 내 진로에도 영향을 주었다.
삶이라는 곳도 알게 되었고 n개 방과후는 끝나지만 앞으로 다른 활동들도 하
고 싶다.

『**우물밖 디자인 - 에나**』

칸트가 칠판에 그림으로 그려줄 때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
는데 막상 연필을 들고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처
럼 쉽게 표현되지 않아 많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리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그림이 나올지 평소에는 하지 않는 고
민을 한다는 것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또한 톱질을 하면서 허리가 조금 아팠지만 아무생각 없이 오로지 톱질에 집
중할 수 있는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솔모를 만드는 나무 - 달채**』

발행일

발행처 **광주광역시청소년삶디자인센터**

기획·제작 **교육팀(마빈, 앵보, 보또)**

홈페이지 **samdi.or.kr**

문의사항 **062.224.0542 / work@samdi.or.kr**

이 책의 저작권은 광주광역시청소년삶디자인센터에 있습니다.
사진과 내용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동의 없이 쓰시면 안돼요